

## 社會的 認知理論 側面에서의 歸因發達에 관한 接近(I) : 道德性 歸因發達 研究中心

金 東 基

江南社會福祉大 教育學科

### I. 社會的 認知理論 側面에서의 歸因發達

초기의 귀인모델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환경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해하려한다는 假定에 근거를 두었다 (Heider, 1958; Jones & Davis, 1965; Kelley, 1973). 이러한 귀인이론은 주로 因果의 상식개념 성질, 귀인의 사회적 성질, 귀인과 행동간의 상관성 문제등에 관해서 研究의 傳統的 脈을 이어나갔지만 심리학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중 한 분야가 발달심리학 측면으로서 Shaw와 Sulzer (1964)의 責任性 研究와 Baldwin과 Baldwin (1970)의 親切에 대한 연구에 이어 70년대 중반부터 귀인에 대한 발달의 주제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귀인의 발달측면연구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중요한 영역이 社會的 認知理論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인지이론은 精神分析的 理論과 社會的 學習理論에서 거의 배타적으로 연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인지적 지향의 연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들에게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Piaget의 영향하에 이러한 귀인의 인지발달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Fincham, 1983). 이와 관련된 초기의 연구에서 보면 Shantz (1975) 등은 對人關係의 推論의 理解에 관한 연구와 이론이 발달연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Flavell (1971)은 이미 初期의 發達理解는 성인에 대한 개념형성연구에 필수라고 지적하고 그의 저서를 통하여 성인의 대인관계에서 推論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 뒤를 이어 이러한 見解들의 差異를 좁혀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들이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 因果的 認知發達

아동의 因果的 思考에 대한 관심은 초기에 Piaget (1926)가 가졌으며 그의 저서 'The child's conception of physical causality'에서 아동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因果推論에 관한 광범한 연구를

하였다(Weiner 와 Kun, 1980). 그가 주요 인과적 발달과정을 세가지로 규정한 것을 보면, 첫째, 아동은 외부세계에 자신의 특성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動機化와 物理的 因果論을 구별하려는 시도에서 일단은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혼돈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subjectification of causality; pre-causality의 개념). 둘째, 아동초기의 인과관계이해는 즉각적이고 외적-일시적 관계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事象과 一時的 要因의 媒介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하였다(formation of series in time). 세째는 인간과정 형성에서 可逆的 連續性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the progressive reversibility of cause and effect).

그후 1974년 Piaget는 저서 'Understanding Causality'에서 아동의 인과과정에는 순수한 형식이 있고, 연령증가에 移行的 推論能力獲得이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이 이론들은 인과적 개념과 관계된 言語發達을 다룬 것인지 因果的 理由를 다룬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비평이 나왔고 Shultz (1980)의 概念的 研究와 Bindra, Clarke와 Shultz (1980)의 實證的 研究에서 인과형성의 形式이나 構造의 측면에서 확증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귀인연구는 Kelley (1967)의 귀인모델을 근거로 한 共變原理가 주된 脈을 이루고 있었고 아동의 인과성 발달에 대해서도 共變性, 連續性, 一時的 順序와 같은 인지작용을 통한 연구로써 실증적 설명을 해나가고 있었다. Siegler와 Liebert (1974)에 의한 연구에서 5~9세의 아동에게 불빛이 나오는 장치 두개로 共變性 知識을 검증하였지만 5~6세에서는 공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8~9세에서 인과적 판단만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더하여 Mendelson과 Shultz (1976)의 실험에서는 자극이 空間的으로 連續性이 있을 때 共變認知가 가능하다고 하고 原因이 結果에 앞서거나 공동발생한다는 가정은 성인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같이 物理的 因果論을 주제로 한 연구는 아동에게 낯설고 익숙치 못한 물리적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과적 인지를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물리적 실험재료가 아닌 言語的 文章에 의한 인과 작용연구와 같은 代案的 研究方法이 한편으로 구사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가 Divitto와 McArthur (1978)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Kelley의 公式과 일치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共變原理를 검증하는 가설을 세운 것으로, 5세부터의 아동에게 행동에 대한 그림과 이야기로 짝을 이룬 정보를 獨特性, 一致性, 一貫性의 次元에서 제공하여 행위자에 대한 귀인을 각각 하도록한 연구이다.

최근에 Allen (1987) 등은 인지발달의 수준에 따라 공변원리를 적용하는 因果性 推論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귀인에 대하여 Piaget 이론을 접목하여 단계별로 操作期의 발달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즉 後·具體的 操作水準에서의 조작은 타인의 과제성취에 대한 설명에서 인과적 귀인을 유용하게 하는 가능성을 엿보였고, 形式的 操作水準에는 귀인과제가 단순할 경우에 정확한 귀인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탐색은 단지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어떤 原理를 검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理論間의 새로운 統合까지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아동에 대한 여러 원리를 이용하여 質的으로 독특한지 안한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동이 인과로서의 後·效果 共變을 고려하도록 된 상황에 있다면 아동의 공변원리 이용은 성인의 그것과는 다른 점을 고찰해야 한다. 즉 아동이 結果(예, 물속에 잠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共變(예, 들의 색깔)을 이용하는 데는 前·因果的 思考(pre-causal thinking)에서 공변이 관련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고, 因果的 關係性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성에는 여러가지 원리사용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 원리들은 연령증가에 따라 因果判斷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는 주요과제를 조망해 보아야 할 것이다.

### 社會的 歸因發達

귀인이론의 認知的 力動에 따르면, 사람과 행동에 대한 평가와 이해는 인과적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참조, Jones & Davis, 1965 ; Jones & McGillis, 1976 ; Kelley, 1967, 1972). 이러한 분석은 분명히 합리적이고 추론의 형식적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세가지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첫째, 인간행동과 정보로서의 社會的 脈絡 둘째, 자연적 논리적 情報處理者로서의 個人 셋째, 귀인 즉 정보분석결과에 해당하는 사회생활의 特性과 그 原因에 대한 推論등을 들 수 있다. 귀인이론의 規則과 原理는 해석의 형상을 알 수 있는 記述的 道具로 제시한다고 하지만 최근의 이론과 연구에서는 그것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 경향은 사회적 인지의 발달 연구문헌에서 증가가 뚜렷하다. 아동이 개인행동이해를 위한 構造構築은 形式的 情報處理探索의 획득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게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增加原理, 一致性原理, 重多充分스키마와 重多必要原因과 같은 形式的 分析構造의 발달을 연구하여 왔다(참조, Divitto & McArthur, 1978 ; Dix, Herzberg & Erlebacher, 1978 ; Ruble 등 1979 ; Shultz 등 1975).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귀인의 발달은 2가지 過程의 모델을 상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동의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規準과 信念에 의해 귀인하는 것에서 부터 形式的 推理에 의해 이루어지는 귀인을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첫번째 過程의 모델은 形式的 情報分析이다. 형식적 정보분석은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관련된 사회적 정보에 대한 체계적 논리적 사고에 의해 특징화된 社會的 推論過程을 의미한다. 또 그러한 분석은 기본추리 기술의 발달에 좌우된다고 믿는 학자들(Jones & Davis, 1965; Jones & McGillis, 1976; Kelley, 1967, 1972)이 因果의 推論論理에서 상호작용을 밝히기 위한 공변정보와 스키마의 특정형태를 사용하여 가설검증을 하는 것이다.

이 첫번째 過程은 形式的 推理技術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발달적이다. 따라서 귀인은 인지발달 및 귀인연구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관찰된 행위 주변정보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추론발달의 인지적 전제조건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過程은 合理的 情報分析이 아니라 사람과 행동에 대한 특정내용의 사회적 신념 획득에 의해서 조정되는 귀인과 규준적용에 관한 모델이다. 이것에는 자신의 사회적 맥락속에서의 특정신념의 관찰이 내포되어 있다. 아동의 특정 사회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過程 2는 합리적도 아니고 발달적인 것도 아니며 인지과정이 形式的 因果分析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초적이다.

Costanzo (1983) 등은 이와같은 귀인과정의 발달에서 社會的 規準과 信念의 역할에 관련된 세가지 요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귀인을 결정하는 사회적 규준과 형식적 분석추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Duke (1983) 연구의 논의에서와 같이, 관찰된 행동이 중요한 사회적 규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사회적 규준이 형식적 인과분석을 강요하고 우세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형식적 인과분석 우세성에 부가하여 그러한 분석이 일어났을때 사회적 규준 인과적 분석을 다시 유도하게 된다는 점이다. 귀인발달에서의 사회화에 대한 세번째 요점은 사람과 행동의 지각이 사회적 맥락속에서 획득되었기 때문에 특징화한 관찰에서 일관성 있고 정확한 성질인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社會的 歸因의 發達理論은 일반적 견해설(예컨대, Guttentag & Longfellow, 1977)이 있고, 또 특별히 성취귀인에 초점을 맞춘 이론(예컨대, Frieze, 1981; Weiner 등, 1971)과 Kelley의 귀인이론(예컨대, Kassin, 1981; Sedlak & Kurtz, 1981)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되어왔다. 더욱이 Kassin (1981)과 Sedlak과 Kurtz (1981)는 귀인이론에 대한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일련의 연구가 있었다.

최근에는 Eisert와 Kahle (1986)는 사회적 귀인발달에 대한 자료연구를 하여 論理的 操作(Piaget & Inhelder, 1969)과 蓄然的 判斷技術(Fischbein, 1975 ; Piaget & Inhelder, 1975)의 統合概念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귀인발달을 설명하는 3水準 理論을 제안하였다. 첫번째 수준은 개연적 판단이 논리보다 우세한 경우이고 두번째 수준은 개연적 판단이 논리보다 덜 중요한 경우이고 세번째 단계는 두 수준을 통합한 경우이다.

**제 1 수준-전조작적 주관론** 아동이 귀인하기에 가능한 사상과 불가능한 사상을 구별할 수 있는 논리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수준이다. 어떤 아동은 논리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의 변화에서 일시적 안정성을 지각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관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Livesley, & Bromley, 1973). 아동의 귀인에서 개연적 판단이 논리성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하여 행동의 설명이 다른 단계보다 주관적이다. 여기서의 주관성은 단서선택을 임의대로 하고 맥락의 무관계한 측면을 제외한 특출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연구에서는 과제수행에서 국민학생보다 취학전 아동이 개연적 판단의 정보를 더 잘 사용한다고 하였다(예컨대, Fischbein, 1975).

**제 2 수준-조작적 객관론** 이 단계에서는 논리적 조작능력이 새로이 형성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논리는 흔히 개연적 사고를 희생시켜가며 사용되고 있어서 초기에는 비교적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논리적기술이 발전되면 아동은 행동원인으로서의 심리적 동기적 구성을 보다 더 잘 인지할 수 있다(Scarlett, Press & Crockett, 1971).

**제 3 수준-조작적 주관론** 논리적 그리고 개연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단계이다. 이 경우 귀인은 보다 조직적으로 되고, 복잡해지고 응집성이 있게 된다. 또 귀인은 안정된 행동특성과 행동에 일시적 상황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상위정보를 통합하여 복잡하고 조리있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결국 추상적 추리능력의 힘으로 원인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개연적 판단의 통합은 성인에게서 관찰되어져 왔다(예컨대, McGuire, 1981).

## II. 道德性 歸因發達 研究

귀인이론을 사회적 행동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인 또는 아동이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체계화하는 일반적 귀인이론에서 행위의 責任性 또는 道德性을 추론하고 평가하는 道德的인 歸因으로 주안점이 바뀌게 된다. 귀인이론에 의한 도덕성 발달연구에서는 Piaget와는 다른 방식의 認知的

接近方式을 사용하게 된다. 즉 행위에 대한 도덕성 평가에서 행위의 책임 및 그 책임 귀인결과에 한정되어 도덕적 판단을 했을 경우에 책임귀인문제가 도덕성 발달에 중요요소가 된다는 관점이다.

Ross와 DiTecco (1975)의 해석에 의하면, Heider (1958)가 설명한 道德的義務의 개념속에는 귀인의 개념이 구조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타인 또는 자신의 행동을 도덕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한 귀인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그 행위의 옳고 그름 또는 價値評價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Reeder와 Spores (1983)도 도덕적 판단에 대한 귀인적 분석연구에서 도덕성의 발달 또는 도덕적 판단과정에 귀인이 불가피하게 관여된다고 하고 다만 도덕적 귀인은 일반적으로 귀인과는 달리 귀인결과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부가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사회적 대인지각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때 그러한 행위에 대해 긍정적 방향의 도덕적 귀인과 평가가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추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이며 혹은 나쁜 행동인가는 좋고, 나쁜 행동에 대한 인지적 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도덕발달을 인지의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하는 부류의 인지심리학자들은 인지적 구조의 기본요소인 스키마를 중개로 하여 도덕적 판단을 추정하는 접근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도덕적 인지요소의 기저를 이루는 행위에 대한 因果論的責任問題를 심리적 추리과정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는 소홀하였다. 예컨대, 특정한 연령의 아동이 특정한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귀인함에 있어서 어떤 道德水準의 스키마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는 관심을 두었어도 그러한 스키마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습득 발달하느냐의 문제는 일반적 인지발달론 즉, Piaget 인지발달단계론 혹은 Kohlberg의 도덕발달 단계론을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발달의 인지요소형성에 因果的判斷이 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도덕발달을 귀인적 스키마 발달과 관련시켜 연구한다면 Piaget/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론의 타당성을 귀인발달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 아동의 도덕성에 대한 귀인연구들은 도덕성의 귀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 귀인과 도덕적 스키마의 관계성, 사회적 인지에서의 인과적 귀인의 발달문제들을 간헐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실험적으로 도덕성 귀인의 발달문제를 다룬 연구는 매우 적었다(실험연구의 예; Karniol & Ross, 1976; Palenberg, Bierman & Furman, 1984).

귀인이론은 Piaget의 인지적 접근에서와 같이 인지적 측면에서 因果的

歸因問題를 다룬다는 점에서 서로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類似性은 두 접근이 서로 補完的인 關係에 있음을 시사한다. Piaget의 도덕적 판단능력에 대한 연구와 귀인론에서의 도덕적 귀인연구는 그것이 물리적 현상이든 또는 사회적 현상이든 모두 因果에 대한 인지를 파악하는데 주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同一視覺의 接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도덕판단에서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설명방식은 도덕적 행위자가 도덕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도덕성의 內面化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덕적 판단능력은 因果知覺能力과 병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因果推理能力의 發達이 도덕성의 발달에 선행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Piaget이론에서의 인과추론 발달은 인지요소의 질적인 변화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고, 인과추리 자체에 작용하는 원리를 狀況條件과 관련지어 추출하는대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사회심리학에서의 귀인론자들은 인지적 발달에 따른 귀인의 변화보다는 상황에 따른 귀인에 관심을 두어 상황적 조건에 따른 귀인의 차이를 추출하였고, 이에 귀추하여 귀인의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또한 귀인론자들은 도덕성을 인지능력의 특정 측면인 귀인에서 파악하고, 귀인의 시간적 발달 보다는 상황에 따른 변화에 관심을 가졌고 도덕성 발달의 질적변화보다는 상황적 조건에 따른 귀인양식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김동기(1986)의 연구 즉, 아동의 도덕성 발달 특징을 도덕적 행위에 대한 귀인의 발달측면에서 실험적으로 분석한 내용중에서 주된 것만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좋은 사람에 대한 도덕성 귀인 연구를 위하여 착한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의 행동에 대한 歸因發達特性을 밝히려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좋은 사람에 대한 귀인에서는 착한 사람과 착한 행위의 귀인을 구분하고 利他行動에 대한 귀인에서는 社會的 壓力狀況과 補償期待狀況으로 나누어 狀況에 따른 歸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접근방법으로는 인과적 인지양식인 귀인스키마를 仲介概念으로 하여 아동의 연령증가에 따른 귀인의 質的 量的 變化의 形態把握을 시도하였다.

## 研究方法 및 結果의 要約

도덕성 귀인에 초점을 둔 이 연구에서 도덕적 행위를 보고 피험자 자신이 도덕적 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판단과정에 관여되는 귀인내용 즉, 道德判斷關與 歸因을 측정하고 그러한 귀인내용의 분석을 통해 귀인발달적 수준을 연령단계에 따라 평가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12개의 시나리오중 4개는 도덕성(정직, 질서, 책임, 예의)에 관계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개는 이타행동에 관한 것이었다. 시나리오들을 테이프를 통하여 들려준 후에 두가지 질문(‘왜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에 자유응답토록 하여 반응을 기술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 4가지 영역에서 상정하였다.

첫째, 도덕성 귀인이 연령단계에 따라 어떤 패턴을 나타내 보이는가?

둘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인 귀인스키마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는가?

셋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성 귀인스키마는 수량의 면에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가?

넷째, 좋은 사람에 대한 귀인과 상황적 요구에 따른 이타행동 귀인을 비교할때 서로 어떻게 다른 발달 패턴을 나타내 보이는가?

被驗者는 만 5세부터 17세까지의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로서 총 911명(남 448명, 여 463명)이었다. 하위집단은 5세, 6세, 7세, 8세, 10세, 12세, 13세, 15세, 17세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반응처리는 각 변인별로 확정된 귀인스키마의 순위번호를 근거로 하여 응답을 부호화하였다. 응답이 질적, 양적, 발달성질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記述的 分析을 하여 컴퓨터 처리를 하였다.

다음의 [표 1]은 착한사람과 착한행위에 대한 귀인발달의 통합된 수준에서의 단계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고, [표 2]는 주요 연령별로 본 발달의 推移를 변화량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그리고 (그림 1)은 4가지 차원에서의 귀인스키마 출현량을 도표로 나타낸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歸因의 量이 증가하다가 10세를분수령으로 그 이후에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어느 범주에서나 뚜렷이 나타났고(참조, 그림 1), 귀인의 質的인 면에서는 초기연령에서는 도덕적 행동에 대한 귀인이 前因習的인 表現을 하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數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因習的 혹은 內顯的으로 表現하는 추세가 명확히 나타났다(참조, 표 1).

또한 낮은 연령에서 단순하고 부분적이고 미숙하게 표현되는 귀인스키마가 주로 낮은 연령에서 많았지만 높은 연령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表現이 꾸준히 出現되는 경향은 아동의 因果的判斷이 具體的 形態에 근거한다는 Sophian과 Huber (1984)의 주장과 상통하는 體系性을 이루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Piaget/Kohlberg가 주장한 結果-意圖中心, 自己-他人中心의 도덕적 평가 이론과의 비교에서 보면 이 연구의 아동이 1~2년 정도 낮은 연령에서 中心位值가 전환되는 도덕성 귀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하위범주간에는 다소 다르게 歸因의 位值도 外的에서 內的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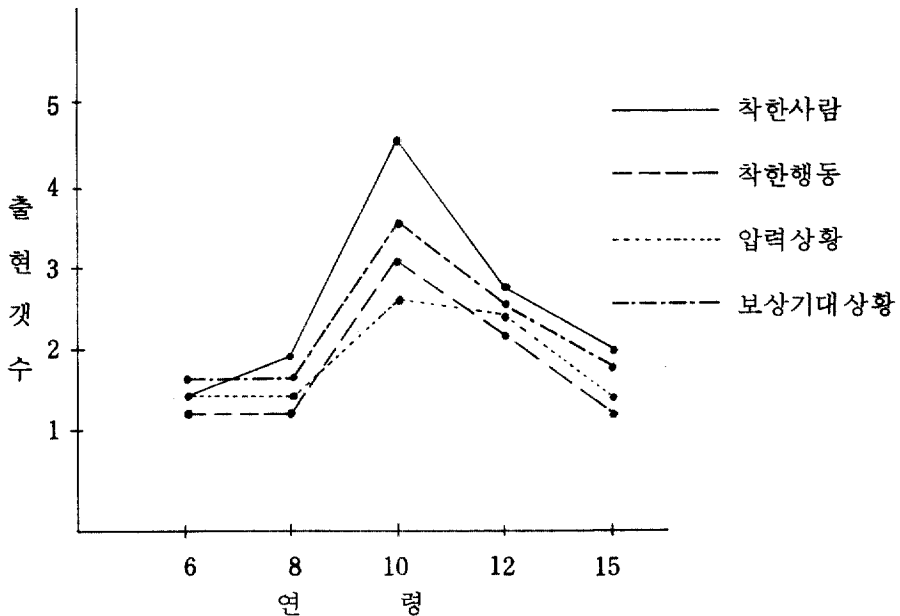
[표 1] 착한 사람과 착한 행위에 대한 귀인의 발달수준

단 계 적 특 징	전형적 스키마	연 령
<p>수준 1</p> <p>단순하고 반사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유치하고, 초보적이고,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귀인</p>	<p>어른에게 갖다준 것 육교로 갔으니 동생을 돌보아서 집을 잘 지켜서 잘 모셔드려서</p>	<p>5세전후</p>
<p>수준 2</p> <p>타인의 존재를 의식하지만 타인을 위한 도덕적 해결방법이 아닌 자기 중심에서 자기위주로 해결하려는 단순한 방식의 귀인</p>	<p>남의 돈 갖지않으니 교통질서 지켜서 착한마음 놀고 싶어도 참아서</p>	<p>6세~ 7세</p>
<p>수준 3</p> <p>통상적 사고에 접근, 성인의 관습에 접근, 정확한 인지적 판단, 합당한 이유, 성인의 도덕적사고에 사용되는 개념적 용어를 이용한 귀인</p>	<p>주인을 찾아주려 했다 할머니에게 가르쳐줌 약속을 지켜서 모른체 앓은것</p>	<p>8세전후</p>
<p>수준 4</p> <p>도덕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 해석 및 심층적사고의 시작, 동기나 감정적인 측면의 통제 및 조정에 대한 귀인</p>	<p>정직하니가 옳은 판단 옳은 사람 생각 책임감으로 한일 노인 공경하고 도운것</p>	<p>10세전후</p>
<p>수준 5</p> <p>사회적으로 최고 수준의 모범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보다 더 차원이 높은 용어로 도덕적 행동의 귀인을 하고, 성숙한 차원에서 사회적 역할 등 사고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귀인</p>	<p>양심적인 행동 안전한 길 선택 부모님을 이해 남의 입장이해</p>	<p>12세전후</p>
<p>수준 6</p> <p>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도덕적 행동을 중요시하고, 구체적, 실제적인 인과적 근거에 의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도덕적 표현이 가능한 수준의 귀인</p>	<p>마음의 통제능력 자발적 질서의식 인격성장된 행동</p>	<p>13세~ 17세</p>

[표 2] 착한사람과 착한행위에 대한 귀인의 변화량

수 준 \ 연 령	연 령				
	6	8	10	12	15
1	242.0	241.2	323.8	225.8	110.3
2	93.4	119.2	281.2	185.2	100.8
3	46.4	73.8	183.8	150.4	78.5
4	36.4	28.5	194.4	115.9	78.0
5	5.0	24.2	88.2	74.3	70.6
6	3.2	9.4	53.2	59.5	64.9

\* 數値는 歸因出現比의 總合임.



[그림 1] 도덕성 귀인스키마의 평균출현량(중앙치)

[표 2]는 하위범주에 나타난 각 범주의 귀인이 出現比를 총합한 것으로서, 낮은 연령의 아동은 낮은 수준의 귀인을 많이 하고 반대로 높은 수준에서는 훨씬 줄어든 경향을 볼 수 있지만, 10세 이후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수준 3을 보아 알 수 있듯이 10세에서 가장 중립적 귀인추세가 나타나, 연령의 차원에서 보아도 가장 態度가 낮은 분포곡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맺 음 말

발달심리학에서 귀인이론이 미친 주요 영향의 성질은 사회심리학에서의 귀인 연구에 반영되고 있다. 전통적 귀인연구에서도 이탈된 社會的 認知側面의 因果的 推論의 研究라 할지라도 연령에 따라 귀인이 발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차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귀인이 일어나게 하는 自然的인 內容과 社會的 그리고 發達的 研究에서 충족되지 못한 必要條件들을 결정할 과제가 남아있다.

대부분의 귀인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檢證을 해보지 않고 있다. 더우기 연구들은 특별한 내용과 관련된 특정 질문만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쉽게 되지 않겠지만 연구들은 여러 귀인연구차원들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되면 발달측면연구가 성인연구를 능가하는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실패로서 因果的 스키마에 대한 연구의 발전은 이에 대한 사회심리학자들의 지식이 증가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연구는 발달심리학과 귀인이론의 共有領域의 연구로서 前者에 관심이 우선이었다. 지금까지 相互交換의인 性格을 띤 이 연구분야는 단일방향으로 인식되어서 Heider와 Kelley같은 귀인이론가들은 아동이 어른의 아버지라는 편협된 견해에서 발달측면의 발견들을 중요시 하지않고 있다.

그러나 Heider는 개인에 대한 歸因의 變化의 傾向은 因果的 思考 發達에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개체의 발생적 성취라는 주장에 의해서 因果的 源泉의 原形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바도 있다. 또한 Piaget의 物活論 概念과 Weiner의 對人間 力學的 知覺概念도 이 현상의 기본으로서 논의되었고 여러 변화는 여러가지 서로 다른 源泉보다는 단순한 것에 귀속되어야 함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귀인이론에 대한 최근 설명(Jaraspers 등 1983)에서 보면 Kelley는 귀인에서의 單純性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도덕성, 도움행동, 정서 등에 대한 귀인연구에서 여러 측면문제와 발달측면 조망 사이에 명확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 귀인문제를 잉태하는 정보획득과 그 과정에 中樞

的 因果 信念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심을 두었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은 확실히 발달의 측면이고, 발달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완전한 답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완벽한 說得力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귀인이론학자들이 귀인이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을 發達側面研究에다 의지를 두고 있는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成人을 대상으로 하지않는 이유로 귀인이론이 단순히 하락되고 있다라기보다, 소망은 실제로 發達側面의 歸因理論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발달측면과 사회심리학간의 結合이 이루어져 상호 밀접해지기 시작하고 새로이 認知發達, 社會心理學의 出現이 대두될 것이 전망된다.

### 참 고 문 헌

- Allen, J. L., Walker, L. D., Schroeder, D. A., & Johnson, D. E.(1987). Attributions and attribution-behavior relations: The effect of level of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99-1109.
- Ault, R. L.(1983).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N. Y.: Oxford University Press.
- Baldwin, A.(1980).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2nd Ed.). N.Y.: John Wiley & Sons.
- Berzonsky, M.(1971). The role of familiarity in children's explanations of physical causality. *Child Development*, 42, 705. 715.
- Brainerd, C. J.(1978). *Piaget's theory of intelligence*. N. Y.: Prentice. Hall.
- Bryant, D. E.(1979). Logical inferences and development. In B. A. Geber(Ed.), *Piaget and knowing : studies in genetic epistemology*. Lodon : Routledge, 53-65.
- Buss, R. R., Yussen, S. R., Mathews II, S. R., Miller, G. E., & Rembold, K. L.(1983). Development of children's use of a story schema to retrieve in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9, 1, 22-28.
- Cochrane, D. B., & Manley-Casimir, M.(1980).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N. Y.: Praeger.
- Cohen, E. A., Gelfand, D. M., & Hartmann, D. P.(1981). Causal reasoning as a function of behavioral consequences. *Child Development*, 52, 514-522.
- De Vitto, B., & McArthur, L. Z.(1978).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use of distinctiveness, consensus, and consistency information for making causal attribu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474-482.
- Dix, T., & Herzberger, S.(1983). The role of logic and salience in the

- development of causal attribution. *Child Development*, 54, 960-967.
- Eisenberg, N., Lennon, R., & Roth, K.(1983). Prosocial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9, 6, 846-855.
- Eiser, J. R.(1980). *Cognitive soci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 Hill.
- Fincham, F. D., & Jaspars, J.(1979).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the self and other in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589-1602.
- Flavell, J. H.(1982). On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1.10.
- Flavell, J. H., & Ross, L.(1983).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New York : Cambridge Univ.
- Hastie, R.(1984). Causes and effects of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44-56.
- Higgins, E. T., Rouble, D. N., & Hartup., W. W.(198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Cambridge Univ. Press.
- Jaspars, J., Fincham, F. D., & Hewstone, M.(1983).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 Con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al dimensions*. New York : Academic Press.
- Jones, E. E., Kanouse, D. E., Kelley, H. H., Nisbett, R. E., Valins, S., & Weiner, B.(1972). *Attribution : Perceiving the casuses of behavior*. N. J. : General Learning Press.
- Kahle, L. R., Eisert, D. C., & Piner, K. E.(1986). The growth of social attributi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6, 151-159.
- Karniol, R., & Ross, M.(1979). Chidren's use of a causal attribution schema and the inference of manipulative intentions. *Child Development*. 50, 463-468.
- Kelley, H. H.(1972). Causal schemata and the attribution process, In E. E. Jones, E. D.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Eds), *Attribution : Perceiving the cause of behavior*. Morristown. N. J. : General Learning Press.
- Kelley, H. H.(1973). The processes of causal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28, 107-128.
- Kelley, H. H., & Michela, J. L.(1980).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In M. R. Rosenzweig, & L. M.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1, 456-501.
- Kuhn, D., & Phelps, H.(1976).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comprehension

- of causal direction. *Child Development*. 47, 248-251.
- Kun, A.(1977) Development of the magnitude covariation and compensation schemata in ability and effort attributions of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48, 862-873.
- Lau, R. R.(1984). Dynamics of the attribu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017-1028.
- Major, B.(1980). Information acquisi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010-1023.
- Mendelson, R., & Shultz, T. R.(1976). Covariation and temporal contiguity as principles of causal inference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2, 408-412.
- Michotte, A.(1963). *The perception of causality*. New York : Basic Books.
- Monson, T. C., & Snyder, M.(1977). Actors, observers, and the attribution processes :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89-111.
- Piaget, J.(1965). *The Moral Judgement of Child*(translated by M. Gabain). New York : The Free Press.
- Pulaski, M. A. S.(1980). *Understanding Piaget*. New York : Harper & Row.
- Reeder, G. D., & Spores, J. M.(1983). The attribution of mor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36-745.
- Ross, M., & Ditecco, D.(1975).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moral judgem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31, 91-109.
- Sedlak, A. T., & Kurtz S. T.(1981). A review of children's use of causal inference principles. *Child Development*. 52, 759-784.
- Serafica, F. C.(1982). *Social-cognitive development in context*.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Shaver, K. G.(1975). *An introduction of attribution processes*. Cambridge : Mass : Winthrop.
- Shaw, M. E., & Sulzer, J. L.(1964). An empirical test of Heider's levels i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9, 39-46.
- Shultz, T. R., & Mendelson, R.(1975). The use of covariation as a principle of caus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46, 394-399.
- Smith, C. L., Gelfaud, D. M., Hartmann, D. P., & Partlow, M. E.(1979). Children's causal attributions regarding help giving. *Child Development*.

50, 203-210.

- Sobesky, W. E.(1983). The effect of situational factors on moral judgements. *Child Development*, 54, 575-584.
- Sotland, E., & Canon, L. K.(1972). *Social psycholgy : A cognitive approach*. Pilladelphia : W. B. Saunders Company,
- Tisak, M. S., & Turiel, E.(1984). Children's conception of moral and prudential rules. *Child Development*, 55, 1030-1039.
- Walker, L. J.(1983). Sources of cognitive conflict for stage transition in mor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9, 103-110.
- Weiner, B., & Kun, A.(1980). The development of causal attributions and the growth of achievement and social motivation. In S. Feldman, & D. Bush(Eds). *Cognitive 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 Hillsdale, N. J. : Erlbaum.

##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Attribution in Social Cognition(I):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Morality Development**

**Kim, Dong-Gi**

*Kangnam Social Welfare College*

The present study was intended to analys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in attribution on moral persons and behaviors. The study was aim at examining qualitative characteristics in the attributional schemas according to Piagetian-Kohlbergian moral development models by analysing qualitatively at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interpretational responses to moral behavior settings given as stimulus scenarios.

The stimulus scenarios describing four elementary moral behaviors(honesty, orderliness, responsibility, courtesy) and four altruistic behaviors(assistance, charity, helping, sharing) were presented to the total of all subjects in the ages between 5 and 17.

The result and their interpretations are synoptically described below.

Attributional schemas on moral behaviors tended to reveal consistency in terms of schematic quality across the areas of moral and altruistic behavior in each group, but also to manifest developmental changes with the increase of age. A quantitative analysis of attributional responses also coincide with the abov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that the age of 10 is the transformational period in attributional development.

The analysis of attributional responses by applying Piagetian scheme of morality development generally supported the Piagetian model in terms of moral development sequence. The comparison of Kohlberg's model and the present data showed consistency in the ages of preconventional and conventional levels in moral development.